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2018년 12월 28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488천 km <sup>2</sup> 	<b>인구</b> 5.77백만 명 (2018 <sup>e</sup> ) 	<b>정치체제</b> 대통령 중심제 	<b>대외정책</b> 중국과의 협력관계 증진 
<b>GDP</b> 427.64억 달러 (2018 <sup>e</sup> ) 	<b>1인당GDP</b> 7,411.44 달러 (2018 <sup>e</sup> ) 	<b>통화단위</b> Manat 	<b>환율(U\$기준)</b> 3.50 

-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러시아, 카타르에 이어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10%, 4위 규모의 천연가스 (19.5조 m<sup>3</sup>)를 보유한 자원부국으로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주변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와 경제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 문화, 언어적으로 유사한 터키, 아제르바이잔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가스관 건설 등을 통해 중국, 인도 등으로 가스 수출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 2007년 집권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2017년 2월 97.7%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하여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되며,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2. 7 수교 (북한과는 1992. 2. 10)

**주요협정**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 공동협력위설립협정(이상 '08), 항공협정('09)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182,162	361,773	130,923	자동차,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수 입	31	92	51	기호식품, 신변잡화,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18. 9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6건, 959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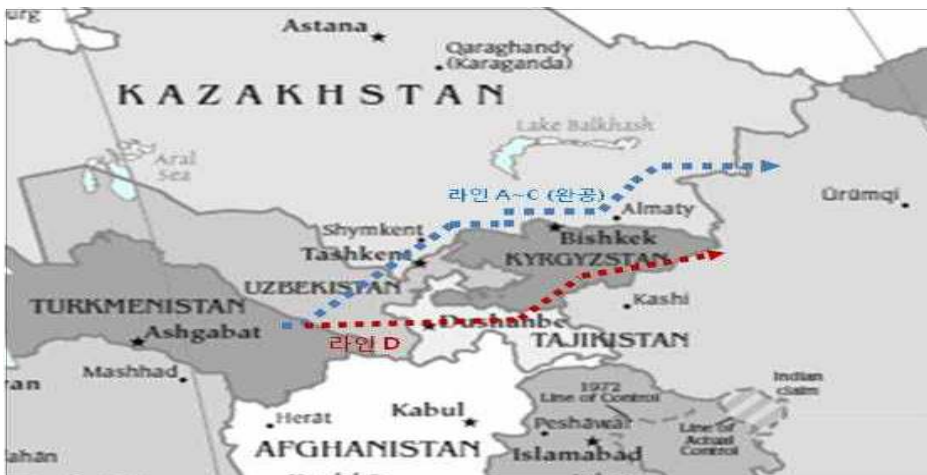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sup>e</sup>
경제성장률	10.4	6.5	6.2	6.5	6.2
소비자물가상승률	6.0	7.4	3.7	8.1	9.5
재정수지/GDP	0.9	-0.7	-2.4	-2.8	-0.9

자료: IMF, EU

### 에너지 가격 안정에 따른 6% 경제성장률 지속

- 중국으로의 가스관 건설로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출노선 확보에 따라 6%대 경제성장률 지속
- 천연가스 생산 규모는 2015년 728억 m<sup>3</sup>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후 2016년 669억 m<sup>3</sup>, 2017년 620억 m<sup>3</sup>로 감소하고 있음. 2017년 기준 세계 천연가스 생산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생산 비중은 1.7%를 기록하였음.
-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은 2009년 제1차 가스관이 완공된 후, 2010년과 2014년 2·3차 가스관이 추가로 완공되었으며, 현재 4차 가스관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4차 가스관 완공이후,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규모는 2016년 300억 m<sup>3</sup>에서 2020년에는 650억 m<sup>3</sup>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주: 라인 A~C : 1·2·3 차 가스관, 라인 D : 4차 가스관

자료: 윤지현,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수출의 대외적 변수와 해결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4.

### 소비자 물가 상승세 지속,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감소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7년 8.1%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9.5%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재 부족과 식품수입 감소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정부보조금 축소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감소추세임.
-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2018년 9월 대통령은 2019년 1월부터 민간에 대한 전력, 가스, 수도 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국내경제

###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6~17년 다소 감소 추세

- 2016~17년 FDI 유입규모는 2014~15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 2017년 FDI는 23억 1,4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CIS 전체의 FDI 유입액의 5.88%를 기록함.

표 1. 투르크메니스탄 FDI 규모와 CIS에서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투르크메니스탄 FDI	3,830	3,043	2,243	2,314
CIS 전체 FDI	50,097	29,447	57,929	39,367
CIS 전체 FDI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비중	7.65%	10.33%	3.87%	5.88%

자료: UNCTAD

- FDI 유입 누적액은 2017년 기준 342.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동 누적 규모는 2017년 CIS 전체의 4.54%를 점유하고 있음.

표 2. 투르크메니스탄 FDI 누적액과 CIS에서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투르크메니스탄 FDI 누적액	26,655	29,698	31,941	34,254
CIS 전체 FDI 누적액	559,083	536,391	686,992	753,946
CIS 전체 FDI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비중	4.76%	5.54%	4.65%	4.54%

자료: UNCTAD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sup>e</sup>
경 상 수 지	-2,828	-1,111	-2,432	-2,032	-1,825
경상수지/GDP	-6.6	-3.1	-6.7	-5.4	-4.3
상 품 수 지	3,032	3,508	2,394	2,960	3,845
상 품 수 출	11,387	9,564	7,668	7,595	7,985
상 품 수 입	8,355	6,056	5,274	4,635	4,140
외 환 보 유 액	30,897	29,356	27,867	27,932	27,932
총 외 채	7,827	7,797	8,349	9,535	11,418
총외채잔액/GDP	18.0	21.8	23.1	25.1	27.0
D.S.R.	9.8	12.9	19.4	19.5	14.4

자료: IMF, EIU

### 경상수지 적자 지속 가운데 GDP 대비 적자 비중은 감소

- 에너지 개발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다만, 2017~18년 에너지 수출규모 증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감소 추세임.

## 외채상환능력

### 양호한 외채구조 지속

- 2018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103.6%,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7%로 안정적인 수준
- 2018년 외채상환비율(D.S.R)은 전년도의 19.5%에서 하락한 14.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단기외채잔액은 외환보유액의 2.7%에 불과하며,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22.6개월 수준으로 매우 양호함.<sup>1)</sup>

1) 그러나, 외환보유액이나 외채 등의 통계지표는 주요 기관마다 다르게 발표되고 있으므로, 통계의 신뢰성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구조적취약성

### 취약한 운송 인프라로 인한 낮은 물류경쟁력

- 국토의 80%가 사막으로 이루어진 자연환경과 운송 인프라 투자 부진으로 운송, 물류 부문이 취약함.
- 2018년 세계은행이 평가한 국제물류지수에서 160개국 중 126위를 기록하였음. 특히 국제운송 부문은 136위, 물류경쟁력은 140위로 주변 국가와의 물류 연계가 미흡함.
-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산악 지대가 많은 타지키스탄을 제외하고는 가장 순위가 낮음.

표 3. 투르크메니스탄의 물류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

Country	LPI 순위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수송	물류역량	물류추적	적시성
투르크메니스탄	126	111	117	136	120	107	130
카자흐스탄	71	65	81	84	90	83	50
우즈베키스탄	99	140	77	120	88	90	91
키르기즈	108	55	103	138	114	99	106
타지키스탄	134	150	127	133	116	131	104

자료: 세계은행

###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경제의 과도한 의존성

- 천연가스 부문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이 경제에서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 부문은 2016년 기준으로 GDP의 50%, 재정수입의 80%, 수출의 90%를 점유하여, 에너지 국제 가격의 변동에 따라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음.
-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의 부진으로 산업 다각화는 미흡한 수준
- 향후 최대 가스 수입국인 중국 경제의 변동에 국가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천연가스 수출대상국은 2000년대까지 러시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9년 중국으로의 가스관 건설 이후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현재 94.3%를 기록함(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81.7%에 달함).

※ 대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비중은 2009년 63.7%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21.6%로 줄어들었고, 2016년 초 이후에는 가스공급이 완전히 중단됨.

표 4.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별 천연가스 수출동향

단위: 십억 m<sup>3</sup>

구 분	전체	중국	러시아	이란
2009	16.73	0	10.66(63.7%)	5.77(34.5%)
2010	19.73	3.55(17.9%)	9.68(49.1%)	6.60(33.5%)
2014	41.6	25.5(61.3%)	9.0(21.6%)	6.5(15.6%)
2017	33.6	31.7(93.4%)	0	0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 2011, 2015, 2018년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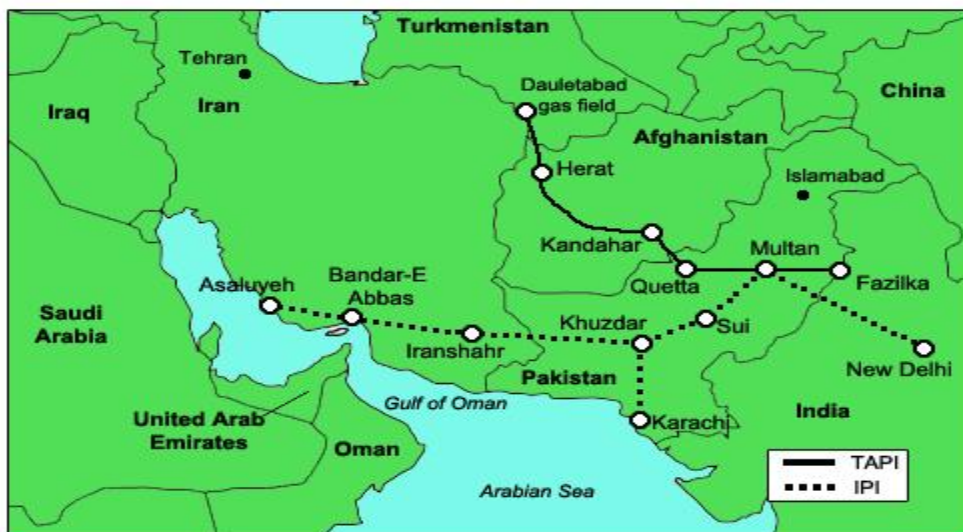
- 에너지 부문 외에는 면화 등의 농업과 섬유산업이 유망하나, 농업 생산성이 낮고 산업다변화는 미흡함.
- 정부가 추진하는 수입대체 정책과 섬유, 식품 등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다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발전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으나, GDP의 13%에 불과하여 생산성이 낮음.

## 성장잠재력

### 에너지 부문의 높은 잠재력 보유

- 천연가스 매장량은 19.5조 m³로 전 세계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세계 4위 규모
  - BP의 자료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35조 m³), 이란(33.2조 m³), 사우디아라비아(24.9조 m³)에 이어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국임.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비중은 10.1%에 달함.
  - 2000년대 후반에 세계 2위 규모의 갈키니쉬 가스전에서 개발이 시작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주요 천연가스 매장 및 생산국으로 발돋움하였음.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스 수출 노선을 확보하고 있음.
  -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중국으로 연결되는 4차 가스관 외에도 TAPI 가스관(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를 연결하는 1,814km 길이의 가스관)이 2020년 완공, 2024년 가스 공급 개시를 목표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 TAPI 가스관을 통해 운송되는 천연가스는 아프가니스탄에 16%, 파키스탄과 인도에 각각 42%를 공급하게 됨.
- ※ TAPI 가스관의 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은 2015년 12월 착공되어 현재 완공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구간은 2018년 2월 공사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재정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림 2. TAPI 가스관



자료: Turkmenistan Oil & Gas Report Q4 2018. p. 29.

- ※ 위 그림의 IPI 가스관은 이란으로부터 파키스탄, 인도를 연결하여 이란의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로, 2009년 미국의 압력으로 인도가 탈퇴하며 건설 논의가 중단되었으나 현재 다시 추진이 논의되고 있음.



- 향후 300km에 이르는 카스피해 해저 가스관 건설도 논의되고 있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 연결되는 이 가스관은 남코카서스 가스관(SCP), 아나톨리아 가스관(TANAP), 아드리아해 가스관(TAP) 등을 통해 유럽으로 연결이 가능함.
- ※ SCP 가스관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로 연결, TANAP 가스관을 통해 터키로 연결되며, TAP 가스관을 통해 그리스, 알바니아, 이탈리아로 연결됨.

그림 3. 카스피해 횡단 해저 가스관 계획



자료: Turkmenistan Oil & Gas Report Q4 2018. p. 29.

-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해결로 카스피해 에너지 개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한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카스피해 연안 5개국은 2018년 8월 카스피해를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진 바다'로 인정하는 내용의 협약에 합의하였음.
- 해안선으로부터 15해리(약 27.78km)까지를 영해로 하며, 25해리(약 46.3km)까지는 배타적 조업 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함. 이 외 대부분은 공동이용수역으로 관리하고 해저 자원은 각국에 분할함.
- 이번 합의가 해저영토 획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점진적으로 해저 영토가 확정되어 유전, 가스전 지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증대됨.
- \* 1991년 12월 소련 붕괴 후 본격화된 카스피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5개국 간에 1996년부터 22년간 51차례 회담을 한 끝에 합의 도출
- 2019~25 투르크메니스탄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이 추진중 임.
- 주요한 정책으로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도입, 경제의 디지털화, 수입 대체 산업 성장, 공공 부문 민영화, 민간 부문 발전 등이 제안되고 있음.

## 정책성과

## 운송, 물류 인프라 개발 추진

- CAREC(중앙아시아 경제협력기구) 등을 비롯한 다자경제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에너지, 운송 등 인프라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ADB 주도로 원활한 운송,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CAREC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에는 CAREC 각료회의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됨.
- 현재 CAREC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가스관 사업인 TAPI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음.
- ※ CAREC 프로그램은 1997년 ADB 주도로 개설되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중국, 파키스탄, 몽골 등 11개 국가와 ADB, EBRD, IMF, 이슬람 개발은행, UNDP, 세계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송, 에너지 등의 190개 프로젝트에 32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 카스피해 관광특구 건설

- 카스피해 연안의 투르크멘바쉬 시 인근 아자바(Avaza) 지역에 관광특구를 설립하여 휴양단지 건설을 추진 중임.
- 터키 등을 비롯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워터파크, 요트장, 호텔, 카지노 등 리조트 단지를 건설하여 주변국으로부터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항구,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의 현대화, 주변의 관광지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음.

## 가스 플랜트 등 석유화학 부문 발전 추진

- 풍부한 자원인 천연가스를 원료로 이용하여 합성수지,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가스 플랜트와 GTL 생산 설비 구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최대 가스전인 갈키니쉬 인근에 가스 플랜트 공장이 건설되었고, 카스피해의 키얀리 가스플랜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수도 아쉬하바드 인근에 GTL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음.<sup>2)</sup>

## 수도인 아쉬하바드의 개발 추진

- 아쉬하바드에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과 이슬람 사원, 호텔, 공원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2) 한국수출입은행은 키얀리 가스플랜트 사업에 대해 7억 달러의 협조유자를 실시하였으며, GTL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정치동향

###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보유

-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2016년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가 기존의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음.
- 2007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7년 2월의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하여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
- 2018년 3월에는 대통령의 아들이 외무부 차관에 임명되기도 함
-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반면,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 단체나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사회단체, 언론은 부재함.

## 사회동향

###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의 영향에 따른 보조금 축소, 임금 지불 연체 등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국민들에게 수도·가스·전력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이를 중단하여 사회적으로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인 1992년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에 대한 공공 서비스 무상 제공 정책이 유지되었으나,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재정부담이 급증함.
- 이에 따라 2018년 9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9년 1월부터 국민에 대한 수도·가스·전력의 무상 서비스 축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향후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16년 초 이후 임금 체불 및 감축으로 여론이 악화됨.
- 에너지 국제가격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2016년 초 러시아에 대한 가스 수출이 중단된 이후, 에너지 기업의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또는 감축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정부에 국민들의 대한 여론이 다소 악화됨.
-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이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 제조업의 미발달로 공식 실업률이 10% 이상이나, 비공식 실업률은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처럼 높은 실업률은 향후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관계

## 영세중립국으로 독자적인 정책 추진

-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나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 중임.
- 1995년 UN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부여받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이 기구들에 가입하지 않고 러시아나 중국과 정치,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소 거리를 두고 있음.
- 다만, CIS에는 준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며 참여하고 있음.
- ※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등은 EAEU, SCO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추진하며 러시아, 중국과 정치, 안보,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하는 정책을 추진

주변국과의 협력 증대<sup>3)</sup>

- 2017년 11월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에 서명한 국경 획정 협약의 비준이 완료되었음.
- 3개국 정부는 2017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에서 국경 획정 협약을 체결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2017년 11월에 비준됨.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18년 4월, 카자흐스탄에서는 2018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국경 획정 협약이 비준되었음.
-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정치적 관계를 공고히 함.
- 2018년 8월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비준이 완료되었으며, 카자흐스탄과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이 비준됨.
- 키르기즈와는 양국 정부 간 경제통상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을 모색 중임.
- 2018년까지 3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아쉬하바드에서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EU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기업의 설립이 합의됨.

## 유사한 민족, 문화, 언어를 가진 터키, 아제르바이잔과 긴밀한 관계

- 터키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건설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 부문에도 다수 진출해 있음.
- 터키는 2017년 기준 중국 다음의 2위의 수출국이며(5.0% 비중), 1위의 수입국임(23.7% 비중). 또한 교육, 문화 부문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과는 양국 외교부 간에 2019~20년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음.

3) 투르크메니스탄은 서방 국가들과는 국내정치 상황이나 인권 등의 이유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외채상환태도

### 전반적으로 양호한 외채 상환태도

- 투르크메니스탄은 파리클럽과의 공적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으며, 전반적인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임.
- 2018년 3월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총 61억 17만 달러임.
- 단기 790만 달러, 중장기 60억 938만 달러로 연체는 없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18.01)	6등급(2017.01)

### OECD는 2008년 2월 이후 6등급 유지

- 국제주요신용평가 3사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국제가격 안정과 중국으로의 가스관 건설로 안정적 수출노선을 확보함에 따라 6%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취약한 운송 인프라로 인한 낮은 물류경쟁력과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경제의존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인프라 개발과 수입대체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여전히 미흡함.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최근 재정 상황 악화에 따라 공공 서비스 부문에 대한 민간 보조금의 축소 등으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다소 악화됨.
- 2018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103.6%, GDP 대비 총외채잔액 27%로 양호한 외채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용등급을 지난해와 같은 D1으로 유지하고자 함.

## 구소련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 각 국 평가일 기준 확인 수치로 최신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OECD 6등급) (수은 D1)	(OECD 6등급) (수은 D1)	(OECD 6등급) (수은 C3)	(OECD 5등급) (수은 C3)
GDP 규모(억 달러)	428	675	1,562	392
1인당 GDP(달러)	7,411	2,128	8,585	4,098
경제성장률(%)	6.2	5.0	3.7	1.3
소비자물가상승률(%)	9.5	13.0	7.3	12.0
재정수지/GDP(%)	-0.9	0.6	-6.6	-0.3
경상수지/GDP(%)	-4.3	0.9	-5.3	1.9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22.6	10.7	3.6	5.8
외채상환액/총수출(%)	14.4	12.3	29.0	10.5
총외채잔액/GDP(%)	27.0	47.1	110.1	44.0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2.7	8.5	39.5	18.2